

□ 정부시책 □

중소기업청, 유망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망 중소기업제품의 미국시장 개척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Best of Korea”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중소기업의 대미수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Best of Korea”는 미국의 마케팅전문가를 활용하여 제품별로 미국시장 개척가능성을 조사한 후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금융을 일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미국측에서는 컨설팅전문기관 GA/IESC,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 FIB, 그리고 이들의 한국대표 사무소(GMBR)가 참여한다.

금년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3월말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약 300개 중소기업이 응모함으로써 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중기청은 그간 신청기업에 대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수출유망기업을 선별, 수출유망성, 기술력, 경영자의 수출의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및 자동차부품 3개 업종 3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서

기술력과 경쟁력은 있으나 해외마케팅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기업당 컨설팅 비용 5천불중 100만원(부담율 17%)을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지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받아 8월말부터 익 2개월간 GA/IESC의 미국시장 조사 컨설팅이 진행된다.

컨설팅 결과 미국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GA/IESC측이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수출관련 서류작성, 바이어관리 등 현지 수출마케팅을 대행하고, 수출계약시 FIB에서 신용베이스의 수출금융을 제공하며

금번 프로그램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가능성 조사와 사업적 베이스에 의한 마케팅에이전트 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미국시장의 현지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에 의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수출마케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주목된다.

중기청은 금년 시범사업의 추진 성과가 성공적일 경우 미국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계속 늘고 있음을 감안,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중소기업청, 해외 유명 인증마크 획득 지원

중소기업청은 국립중앙과학관(대전)에서 해외 인증획득 지원기업 500개와 컨설팅 업체 115개 등 7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해외 인증마크 지원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해외 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500개 중소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인증획득 비용의 최고 70%를 지원하고, 해외규격 등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인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기관의 전문인력과 시험장비

등을 활용하여 제품시험, 인증절차 등을 대행해 주게 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신장을 위해 내년에도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UL(미국), CE(유럽) 등 20개국 50개 인증마크에 대하여 1,000개 업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98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내수 위주기업의 수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80업체를 지원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1차로 360개 업체, 이번에 다시 500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되는데 이에 따르는 수출증대 효과는 약 5억불에 달할 전망이다.